강용주의 '인권 광장'

침묵의 시선, 우리의 거울

"나는 왜 노래를 하는가/ 아픈 가슴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노래하지/ 어차피 끊어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물레에 실을 잣고 있는가/ 어차피 가슴만 아플 뿐인데/ 무엇 때문에 묻어 둔 기억을 들춰내는가"(침묵의 시선 중)

'침묵의 시선'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죠. 미국 CIA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킨 수하르토 장군은 '반공'을 명분으로 공산주의자·지식인·중국인들을 비밀리에 살해했습니다. 자그마치 100만 명이 넘는 대학살이었습니다. '학살을 학살로 직시하기' 위해 오펜하이머 감독은 두 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액트 오브 킬링'을 '가해자가 찍은 가해자의 과거'라고 한다면, '침묵의 시선'은 '피해자가 찍은 가해자의 현재'라 할 만합니다.

'침묵의 시선'의 주인공은 안경사 아디입니다. 1965년 인도네시아 군부정권의 대학살 당시 100만 명이 죽었지만, 목격된 희생자는 단 한 명의 청년 '람리'뿐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디의 형입니다. 아디가 태어나기 전, 형은 학살당했습니다. 대학살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억은 거기에 멈춰 있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디의 어린 아들은 가해자들이 영웅이 되고, 학살이 자랑스럽게 기억된 역사를 배우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영화는 형을 죽인 살인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시력을 교정해주는 아디의 깊고 슬픈 시선을 담아 갑니다.

아디와 가족들은 '람리'를 죽인 사람들과 같은 마을에서 지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지켜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고통과 아픔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나지막이 기도할 뿐입니다. '살인자들의 자식과 그 손주들까지 똑같이 고통을 받게 하소서.'

'람리'는 침묵의 이름입니다. 무관심·회피·부인·억압이라는 '침묵의 음모'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학살자들은 자신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 학살했던 장소에서 재현하며 증언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만큼 당당합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왜 다 나은 상처를 들추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지난 일은 잊어요. 그때를 교훈 삼아 잘 지내면 되죠"라고 타이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강요된 망각에 맞서 '과거를 기억'하려는 '아디'에게는 "지금이 그때라면 자네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몰라"라고 협박도 합니다.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은 관객과의 대화에서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말이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한다. 그 말은 가해자들에겐 자신이 저지른 죄로부터 도망가려는 수단이고, 피해자들에겐 공포 속에 묻은 슬픔이다. 하지만 과거는 죽지 않는다."

이 영화는 학살이라는 참사 위에 세워진 거짓된 사회가 어떻게 찢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실과 정의를 얼마나 바라는지를 보여 줍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담담하게 보여 줍니다.

'람리'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공포의 근원을 일깨우는 것이며, 그것은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침묵과 망각에 맞서 '진실을 말하기'(Telling the truth)에서 시작합니다. 아디가 "저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온 거예요"라고 말했던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안경사 아디의 눈으로 본 '침묵의 시선'은 인도네시아를 들여다보는 '창'이 아닙니다. 고문과 학살의 역사를 지닌 우리의 '거울'입니다. 수많은 민간인 학살, 고문 그리고 5·18에 대해 사죄나 반성은커녕 왜곡과 의도적인 폄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선 시장은 '5·18은 극복해야 할'것이라고 말합니다. '침묵의 시선'은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끊어질 줄 알면서도 물레에 실을 잣고, 아플 것을 알면서도 기억을 들춰내는 것은, 그래야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종교칼럼

받아들이세요

일 담
강진 백련사 주지

불교에서는 섭수(攝受)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받아들이세요' 쯤 될 것입니다. 섭(攝) 자를 풀이해 보면 손 수(手)변에 귀(耳)자가 세 개나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두 개인데 왜 세 개가 있을까요? 그만큼 잘 들으라는 뜻도 있겠지만 나머지 하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두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의 귀로 들으면 이해 하지 못할 말이 없습니다. 손 수(手)가 앞에 있는 것은 귀에 손을 대고 자세히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으면 받아 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커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도 각자가 다르게 받아들여서 쉽게 오해하고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섭수 수행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머리를 떼어놓으세요. 분별을 일으키는 머리로 판단을 하면 절대 섭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귀인 마음으로 들어서 가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섭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슴에 한이 맺힌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 가슴이 답답하고 화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슴이 미워하는 감각을 가장 잘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왠지 미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가 몸 어디선가 뭉쳐서 생활하기 힘들게 합니다. 섭수의 受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에 집착하거나 모른 척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달라붙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서 드러내보면 원인에 조건이 붙어서 하나의 허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조건을 풀어 헤치면 에너지가 본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어떤 식으로 생겨났는지 여실하게 보면 본래 없었던 것임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작용을 하는 곳이 바로 가슴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옳고 그름, 길고 짧음 같은 비교를 합니다. 괜한 과거를 꺼내서 좋은 것은 탐착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기도 합니다.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사는 사람은 머리로 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가슴으로 살아보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항상 현재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행법이 사섭법이 있습니다.

보시(布施) -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물질이든 정신이든 항상 베풀려는 마음이 생갑니다. 애어(愛語) -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긍정적인 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행(利行) - 나만이 아니라 타인이 편안하고 나의 도움으로 마음이 유쾌해지는 행동을 합니다. 동사(同事) - 보시, 애어, 이행을 하면서 구별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섭법을 수행을 하는 사람은 섭수,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 고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주택연금으로

조 학 현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장

최근 한 국제단체의 조사 결과, 2015년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96개국 가운데 60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선진국인 이웃나라 일본은 물론이고 태국, 베트남, 필리핀보다도 뒤지는 순위로, 노년층 빈곤율이 48.5%(전체 평균 12.9%)에 달하는 등 경제력 부문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탓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최근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빈곤에 시달리는 노년층의 극단적 선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다. 산업화, 핵가족화, 평균수명 연장 등 급격한 현실 변화로 체계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졌지만, 노후를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대다수는 별다른 대책 없이 길어진 노후를 맞이하게 됐다. 사회적 시스템도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공적연금 혜택을 받는 노년층의 비중이나 수령금액이 낮으며, 연금 소득대체율은 45% 수준으로 주요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70~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취약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처럼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 보유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 노년층에 맞춤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처분하거나 작은 평수로 옮기지 않고도 평생 현주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는 받은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가입 시 결정된 금액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적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 주택가격과 누적연금수령액을 비교하여 집값에서 남는 부분은 상속되고, 집값보다 더 받은 부분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부담한다. 주택연금은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유리한 제도다.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식이 개선되면서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 출시 이후 지금까지 2만 6000여 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특히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인 1955년생이 가입대상에 포함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최초로 연간 6000명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소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우선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던 연령 요건이 소유자 연령에 불문하고 부부 중 고령자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음으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됐던 대상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9억원 주택가격 한도는 없어진다. 끝으로 당초 올해 말까지이던 주택연금 가입자의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이 201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개선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 고가주택 보유자 등 가입대상이 늘어나고, 세제혜택이 유지되면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맞게되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향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출시 후 700여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으며, 금년 가입자 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8% 늘었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 가입자수 점유율은 전체의 2.6%로, 60세 이상 고령자 인구수 점유율 약 8%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고 상속의식 및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이 40년까지 길어진 100세 시대에, 집에 대한 애착 때문에 평생 연금을 포기하고 자녀 부양에만 의존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 의문이다.

한편 주택연금의 필요성은 알면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주택연금 가입을 보류하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주택의 실질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주택가격상승률 하락을 반영하여 매년 월지급금을 낮추고 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길어진 노후와 주택연금에 대한 현명한 인식 전환으로 우리나라가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社 說

담양 세계대나무 박람회가 성공하려면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내건 '2015 담양 세계대나무 박람회'(이하 담양 대나무 박람회)가 어제 개막돼 4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죽녹원 및 전남 도립대 일원에서 펼쳐지는 담양 대나무 박람회는 대나무라는 단일 주제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국제행사다. 특히 군 단위로는 국내 최초인 국제 박람회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는 담양이 명실상부한 세계 대나무 산업의 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나무 박람회를 통해 182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05억 원의 부가가치가 예상된다. 단순히 예산만 축내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사실 경쟁력 있는 축제는 도시의 미래를 바꿀 만큼 파급력이 크다.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순천시가 좋은 예다.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 개막 이후 1000만 명이 찾는 힐링 명소일 뿐 아니라 '국가정원 1호'로 선정되는 등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나무 박람회는 일단 출발이 좋다. '작지만 내실 있는 축제'를 모토로 한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0년 박람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여 동안 체계적으로 대회를 준비해 왔다. 그 결과 흥행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54만 6000매의 입장권 사전 판매를 기록했는데 이는 관람객 유치 목표인 90만 명의 60%가 넘는 수치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나무 박람회가 성공하려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내 고장에서 열리는 축제인 만큼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한편 질서를 지키는 등 주인의식을 갖춰야 한다. 모쪼록 대나무 박람회가 담양을 넘어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었으면 한다.

창당 60주년 새정치민주연합 어디로 가나

오늘 창당 60주년을 맞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한국 정통 야당의 맥을 이어온 새정치연합은 지금 두 동강 직전의 분열상을 노출하고 있다.

당 혁신안 의결을 위해 그제 개최된 중앙위원회는 새정치연합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최고위원제 폐지와 공천 제도 변경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은 비주류가 퇴장한 가운데 박수로 통과됐다. 이날 비주류는 '혁신이 아니라 유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통합과 희망을 제시해야 할 새정치연합이 분열과 퇴행으로 실망감만 더해 주고 있다.

정당의 내분은 당 대표의 지도력 부재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퇴진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신임 여부를 밀어붙인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혼돈을 불러오는 원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구조적으로 당내 계파의 뿌리 깊은 갈등 문제도 있지만, 이 또한 대표가 추슬러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바깥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미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가칭 '신민당'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천정배 의원은 오는 20일께 새로운 정당을 출발시킨다고 예고했다. 따라서 이번 추석 대목이 새정치연합의 갈림길이 될 것 같다.

문 대표는 추석 전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국 혁신위원마저 "당 개혁 실천이 대강 마무리되면 문 대표는 백의종군을 포함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내우외환으로 새정치연합은 백척간두에 선 격이다. 이미 '심리적 분당'에 이른 상황에서 문 대표가 극적인 반전을 도출하지 못하면 60년 새정치연합은 좌초될 수도 있다. 당장 분당이나 대규모 탈당이 이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정치력과 리더십 실종으로 방향을 잃은 야당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다.

無 等 鼓

달의 뒷면

사람들이 지구에서 보는 달은 항상 같은 면이다. 지구의 자전과 중력 등의 영향으로 맨눈으로는 달의 뒷면을 보지 못한다. 달의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는 이유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지난 1962년 미국로켓학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지구는 외부 우주에서 온, 고도의 문명을 가진 지적생명체의 방문을 받고 있다. 지적생명체들은 달의 뒷면에 기지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지구로 날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1968년 12월 21일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도는 데 성공한 아폴로8호가 달의 뒷면을 돌아 앞으로 나왔을 때, 선장인 프랭크 보먼은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타클로스는 실재했다!" 연구가들은 이 발언 가운데 '산타클로스'를 UFO(미확인비행물체)나 UFO 기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호사가들은 더 나아가 '달은 인공 천체이며 거대한 우주선'이라는 가설도 내놓고 있다. 달 탐사선들이 근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분석해보면, 달 표면에는 X자형 건축물을 비롯해 뱀처럼 구불거리며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첨탑, 광대한 피라미드, 삼각형·정육면체·직육면체 형태의 기하학적 구조물 등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모든 '수상쩍은 흔적들'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미국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 왔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미국만이 우주를 깊숙이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주에 관한 '기념비적인' 정보를 미국이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확인할 수가 없어 애를 태워 왔다. 중국도 최근 달의 뒷면을 조사하기 위해 탐사선 '창어4호'를 오는 2020년 이전에 발사하기로 했지만,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확보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내년 '달 탐사'사업에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주탐사는 한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보여 주는 척도다. 우리도 달 뒷면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하더라도 달 궤도까지는 가 볼 때가 됐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